

재미있는 우편상식+

우편산업 엑스포

박 종 흥*

인터넷, GPS, WiFi와 같은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10년 전 만해도 전문가 그룹, 그 전에는 군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알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용어였지만 휴대폰, 인터넷,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평범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한 때는 “기술”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되곤 한다.

우정정보지의 특성상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쓴다면 독자들은 아예 들춰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칼럼을 기술보다는 편안한 그래도 상식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상식+”란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다. 우편의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독자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 세계 우편물 통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물량은 약 4,500억 통에 매출액은 약 30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2011년에 48억 통에 약 2.5조 원 규모다. 생활 방식과 정보화 수준에 따라 매년 물량이 다소 변화되고는 있으나 매년 일정 규모의 산업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규모가 일정해도 그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정보화 물질로 인해 고객 서비스와 우편 인프라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진화되고 우편 분류 업무에 ICT 기술이 융합되면서 우편을 이용한 고객, 즉 소비자가 상당히 변했다.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이 주를 이루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배경으로 정보화와 자동화 관련 산업군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끈임 없이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 물류 산업과 연계한 학문적인 논의들과 각 나라의 정책 현안들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형태의 모임이 우편분야에서

* ETRI 우정물류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jpark@etri.re.kr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임은 1968년 미국의 NPF(National Postal Forum)을 시작으로 이어 오다 우편 산업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1990년 대에는 유럽 지역의 우편 전시회, 포럼, 정책 토론회 등이 통합한 형태의 Post-Expo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년 현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대 말 우편 선진화 과정 우정관계자, 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KPF(Korea Postal Forum)이 한동안 운영된 사례도 있다. 여기서는 각 나라 또는 지역별로 개최되는 우편 산업 엑스포에 대해 살펴본다.

I. 미국 지역



NPF(National Postal Forum)는 1968년에 미국 우정(USPS)과 협력 관계에 있는 우편 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조직한 비영리 단체 모임이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우편 관련 행사이며, 미국 우정을 중심으로 미국 우편 산업체 간 정보를 교류하고, 우편 산업체 담당자에게 미국 우정의 우편 신기술과 서비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4~5월경에 미국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6,000여 명의 우편 산업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

NPF에서는 미국 우정의 정책과 서비스 및 기술을 중심으로 우편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Pitney Bowes, BoweBell + Howell, Neopost, Siemens 등과 같은 주요 우정 산업체의 신제품 전시회를 진행한다. 특히 우편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이 포럼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부여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우편 관계자들의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능형 우편 시행과 관련한 최신 정보 제공, 대형 서장(Flat) 우편에 대한 구분기 및 지능형 우편 바코드 적용 방법, 환경을 생각하는 우편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MailCom


<http://mailcom-conference.com/>

MailCom은 미국 내 우편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이 우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두 차례씩 동부·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3일간 개최하고 있다. 우편·물류(배송) 시스템 관리자 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MASA(Mail Systems Management Association)가 주최하고 있다. 광고·홍보 우편물(Direct Mail) 업체 등 관련 업체 직원들이 주요 참석자다.

MailCom은 우편 장비 업체의 제품과 우편 관계자들이 운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와 DHL, UPS 등의 특송 회사와 미국 우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 등에 대한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 장비 업체의 제품 소개와 우편 관계자들의 정보 공유의 성격이 크게 나타난다. 2009년에는 미국 우정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우편(Intelligent Mail)에 대한 정책과 홍보, 그린 물류 같은 친환경 녹색 성장의 주제(Going Green Eco-Wisdom)가 이슈로 논의되었다.

II. 유럽 지역

Post-Expo와 'Courier and Parcel Logistics Expo'


<http://www.postexpo.com/>

Post-Expo는 우정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1997년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매년 10월경에 3일간 개최된다. 영국의 UKIP Media & Events Ltd.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등 237개 우정·물

류 업체 및 정부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관하고 있다. 우편 관련 학술 세미나와 전시회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

Post-Expo의 전시회에서는 NeoPost, Lockheed Martin, NEC 등 주요 우편 산업체의 우편물 구분기, 우편 봉입 봉합기, RFID 장비, e-Biz 등 다양한 솔루션 및 장비가 소개되고, 학술 대회에서는 주요 선진 우정 당국자 및 산업체의 고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대표적인 학술 대회 세션에는 미래 우정 정책 및 기술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는 'World Postal Business Forum', 우편·특송 사업을 위한 운영 관련 이슈를 발표하는 'Operations Conference', 주제별로 우편 기술을 발표하는 'Technology Workgroups', 택배·특급 우편물 배달 기술·서비스를 논의하는 'Courier & Parcel Despatch Forum' 등이 있다. 2009년에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확산에 대응한 부가 가치가 높은 솔루션 분야로 우편 시장의 확장, 우편 서비스에서의 환경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Ⅲ. 우리 나라

KPF(Korea Postal Forum)



(http://postinfo.etri.re.kr/front/bbs/announce/view.jsp?list_no=42&board_no=1)

우리 나라에서도 우편 선진화가 시작된 1990년 대 말에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편사업이 잘 나가던 2000년 대에 미국의 NPF를 롤 모델로 삼아 KPF를 창립하고 2009년까지 개최하였다. KPF는 대한민국 우정 산업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선진 우정 기술 동향과 국내외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큰 규모의 공식 행사였다. KPF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Korea Post)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처리학회(KIPS), 우정기술연구회가 주관했었다.

매년 4월~6월경에 이들 동안 개최되고, 초청 강연회와 우편 장비와 솔루션 전시로 구성된다.

초청 강연회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해 국내외 우정 산업의 주요 정책과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국내 우편·물류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우편·물류 산업의 이슈와 주요 기술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우정·물류와 관련한 산·연·관의 신제품과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개하였다.

2005년 5월 아·태우편연합 서울 총회와 함께 개최된 KPF에서는 당시 국무총리가 전시회에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후 2009년 까지 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우정 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대학, 우정 산업체, 만국우편연합 등 해외 우정 관계자 등을 포함한 오백 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 몽골 등 해외 우정 관계자와 국내 우정 IT 산업체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산 우정 제품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익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편 사업의 하락과 새로운 이슈가 적어짐에 따라 2009년에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된 KPF가 마지막이 되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우편, 특히 편지(서장) 물량의 감소가 큰 이유였다. 격년제 개최도 검토되었으나 한 번 식어진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KPF를 통해 많은 정보와 인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우편 기업들과 사용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참 고 문 헌

박종홍·김인수·엄보윤, “훤히 보이는 우편기술”, 전자신문사, 2009. 12.